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와인은 AOC, VDQS, Vin de Pays, Vin de Table 등 4가지로 등급이 분리되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는 상표의 도용을 막고, 유명 포도원이 타지방의 포도를 대량으로 사와 자기네 상표를 붙여서 파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이러한 품질관리는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키고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획득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는 프랑스 와인의 등급 및 표시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편집자주>

(1) A.O.C. (Appellation d'Origine controlée : 원산지명 통제 와인)

1905년부터 구상되어 193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방행정부에 의한 엄격한 품질관리제도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AOC는 고품질을 보증하는 라벨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토양 및 경작의 위치, 사용되는 포도품종, 포도재배방법과 양조, 숙성까지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경작지의 경우 토양에 따라

아주 작은 단위로 구분해 놓는데 어떤 겨우는 바로 길 건너 포도원인데도 분류가 다를 만큼 아주 자세하게 나뉘어져 있다.

이는 타지방보다 전통적으로 개인 경작지로 잘게 나뉘어진 부르고뉴의 경우에 더욱 심하다.

또한 정해진 토지에서는 정해진 포도품종만을 재배하도록 규정하고, 다양한 품종을 사용할 경우 섞는 비율까지 법으로 제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생산된 후에는 포도주 화학분석과 국립 원산지명 연구소(INAO)가 주도하는 시음회를 통과해야만 라벨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와인의 품질도 보증하지만 각 지방에 따른 와인의 전통을 지켜주는 역할도 한다.

전체 생산량의 약 35%를 차지한다.

프랑스의 모든 와인이 이 AOC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 중 보르도 지방과 부르고뉴 지방의 경우에는 AOC등급 내에서도 자체 내의 등급이 세분화되어 정해져 있다.

(2) VDQS (Vin Delimites de Qualite Superieure : 우수품질 제한 와인)

194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 역시 생산지역, 포도품종, 알코올함양도 수, 헥타르당 생산량, 포도재배방법, 양조법을 정해놓고 AOC에 못지않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한다.

AOC로 올라가기 위한 대기단계로 볼 수 있으며, 프랑스 와인 전 생

산량의 2%정도 밖에 안 된다.

(3) 벵 드 페이 (Vin de Pays : 지방 와인)

이 단계까지는 원산지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지역이 위의 두 단계 와인보다 넓게 정해져 있다.

포도품종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정해져 있으며 간단한 성분분석과 시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와인에 지역명을 붙이는데, 최근에는 프랑스에서도 미국, 호주와인등과 같이 한가지 포도품종만으로 생산하여 그 품종의 이름을 붙이는 벵드페이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생산량의 15%

(4) 벵 드 따블 (Vin de Table : 테이블 와인)

생산지역이나 생산연도의 표시가 없고, 프랑스에서 사용된 와인이라면 모두 이 표시를 달수가 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가 아니라도 여기저기서 사와서 섞어서 만들어 출하해도 상관없다.

가격이 저렴해서 일상적이 식사 때 항상 테이블에 놓이는 와인이다. 전체 생산량의 38%

AOC 내에서 보르도 와인의 등급

보르도 와인은 AOC와 별도로 세 가지의 등급으로 나누어 라벨에 표시한다.

(1) 지명표시 와인

칼베(Calvet), 꼬르디에(Cordier), 바르통 에 게스피에(B&G) 등의 대형 중간제조사(Negociant)들이 생산하는 와인으로 회사명 밑에 'Bordeaux, Medoc'등과 같이 와인의 원산지명만을 표시하는 일반 AOC와인이다.

(2) 생산자 표시 와인

중간 제조사에서 생산한 지명표시 와인보다 한 단계 고급 와인인 로, 라벨에 '무퐁 까데(Mouton)'와



같이 와인의 생산자나 상징명이 명기된 와인이다.

(3) 샤토 와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특정 포도원에서, 재배와 제조, 숙성과 라벨작업까지 완성되어 출고되는 와인으로 가장 고급 와인이다.

반드시 라벨에 "샤또에서 병입됨 (Min en bouteilles au Chateau)"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

보르도 지역 중에서도 메독지방의 샤토 와인은 1855년 이래로 5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그랑크뤼 끌라세(Grand Cru Classe)라고 한다.

메독의 그랑크뤼 끌라세

1등급(Premier Cru)

2등급(Deuxieme Cru)

3등급(Troisieme Cru)

4등급(Quatrieme Cru)

5등급(Cinquieme Cru)

AOC내에서 부르그뉴 와인의 등급

(1) 빌라주 와인(Village)

일정 구역 내에 있는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와인으로 그 지역을 상표에 표시한다. 예) 보졸레 빌라주

(2) 1등급 와인(Premier Cru)

특정 포도재배지에 있는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와인으로 상표에 지명을 먼저 표

시하고 다음에 포도밭 명칭을 표시한다.

(3) 특등급 와인(Grand Cru)

1등급 중에서도 추려져서 기후, 토양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한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와인으로, 로마네 콩띠 (Romanee Conti), 몽라세 (Montrachet)와 같이 그 이름만으로도 AOC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춘다. ☺